

“선배님 감사합니다” 광주 동성고 야구부 따뜻한 연말

‘40억 FA’ 롯데 노진혁 2천만원 상당 야구 방망이 전달
KIA 양현종 후드티 50벌...4년만에 야구동문 대제전도

잔바람이 부는 12월이지만 광주 동성고의 겨울이 따뜻하다. 동성고에 얼마 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동성고 출신의 롯데 노진혁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모교를 찾았다. 노진혁은 직접 걸음을 해 동성고·후배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방망이를 선물했다. 노진혁은 “FA 계약도 했는데 후배들이 필요한 것을 선물하고 싶었다. 더 좋은 방망이를 쓰면 도움이 될까해서 방망이를 준비했다”며 “어렸을 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모습을 봤었다. 나도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다. 아직 후배들에게 해준 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후배들에게 힘이 된 노진혁은 내년 시즌에는 팀에 더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NC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던 노진혁은 올 시즌 FA계약을 통해 롯데로 이적했다. 많은 기대 속에 새 시즌을 열었지만 아쉬운 성적과 함께 롯데의 ‘가을잔치’라는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노진혁은 “팀도 많이 기대했을 것인데 그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시즌이었다.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이기 때문에 부상 관리 잘해서 팀과 팬들이 기대하는 역할

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다른 선물도 동성고에 도착했다. KIA 양현종이 추운 겨울 후배들이 따뜻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동성고·후배들에게 후드티 50여벌을 전달했다. 양현종은 지난 2017년에는 동성고 후배들에게 버스를 선물하기도 했다. 따뜻한 선물을 받은 동성고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단체 사진을 찍어 선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근에는 모처럼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동성고 야구동문 대제전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동성고 이전 광주상고의 대표적인 선수였던 대선배 김종모 전 KIA 수석코치, 고향팀을 떠나 SSG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포수 신범수, 전역 후 인상적인 시즌을 보낸 KIA 포수 한준수, 올 시즌 1군 데뷔전을 치르고 한국시리즈까지 경험한 KT의 3년 차 투수 김영현 등이 동문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모교에서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한 강경호 코치에게는 선후배들 앞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가 됐다. 동성고 김재덕 감독은 “코로나로 한 동안 자리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게 돼서 좋았다. 선수들이 몰래 행사 준비도 해서 놀랐다.



롯데 노진혁(가운데 검은색 옷 착용)이 최근 모교인 광주 동성고를 찾아 후배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방망이를 선물했다. 노진혁이 동성고 김재덕 감독(오른쪽), 동성고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성고 제공)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 시즌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올 시즌을 교훈 삼아서 코치, 선수들과 내년 시즌 준비 잘 하겠다. 또 현역으로 프로에서 뛰고 있는 제자들 모두 부상 조심하고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동성고발 훈풍은 1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 여행 등의 일정으로 동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현역 선수들이 대거 모교행을 준비하고 있다. 새 시즌을 위해 동성고를 준비 무대로 삼

아 후배들에게 움직이는 교과서가 되겠다는 각오다. 매년 겨울 광주야구 사랑방이 됐던 동성고가 또 다시 야구 열기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하면 야구... ‘야구’ 하면 광주일고 야구부 창단 ‘100주년’ 다 함께 즐기자

전국대회 26차례 정상·ML 활약 선수 등 배출...내년 1월 20일 모교서 기념식



‘광주’ 하면 야구가 떠오른다. ‘광주야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광주일고다. 전국대회에서 26개의 우승트로피를 차지한 광주일고는 스타선수들의 산실이기도 하다. 빛나는 역사를 지닌 광주일고에 2023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1923년 야구부가 창단된 지 올해로 100년. 한 세기를 달려온 광주일고가 또 다른 100년을 위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일고가 야구부 창단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분주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기념식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광주일고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광주일고 역사의 ‘산증인’ 나훈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광주고보·서중·일고 야구부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서구 스포츠클럽 류창원 사무국장이 추진위원으로 주재성 야구부 동문회장과 함께 행사 준비로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책자와 사진으로 100년 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 공로패 전달과 선후배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도 마련된다.

100년을 돌아보는 광주일고의 콘텐츠는 풍성하다. 광주일고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모교이름을 새긴 전통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호령해왔다. 1949년 제4회 청룡기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2018년 황금사자기와 전국체전 우승까지 26차례 전국대회 정상을 밟았다. 대통령배, 황금사자기와 광주일보사가 주최했던 무등기까지 모든 전국대회를 석권한 광주일고는 1983년에는 대통령배-황금사자기-봉황기 ‘3관왕’도 차지했다. 출신 선수들로 채우는 광주일고의 역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년 터울로 광주일고 유니폼을 입고 함께 뛰었던 서재웅·최희섭·김병현이 나란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야구 본고장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동문 파워’를 과시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었던 강정호까지 광주일고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4명의 메이저리거를 배출했다. 이견 없는 KBO리그 투-타의 전설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과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광주일고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선배들의 뒤를 이어 후배들도 부지런히 KBO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선발과 마무리로 KIA의 승리를 합작하고 있는 이의리와 정해영도 광주일고 마운드를 이끈 선후배 사이, SSG는 물론 대표팀 외야까지 책임지고 있는

최지훈, ‘가을잔치’에서 NC 마운드를 굳게 지켰던 김영규, 두산의 ‘킵터’ 허경민 등이 광주일고 출신 선수다. 뛰어난 입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박재홍 해설위원과 이대형 해설위원도 광주일고의 일원이다. 광주일고 사령탑도 올 시즌 화제가 됐다. 29년 만의 LG 통합 우승을 이끈 엄경열 감독, 한국시리즈에서 LG와 상대했던 KT의 이강철 감독 그리고 고향팀을 지휘하고 있는 KIA 김종국 감독까지 KBO리그 사령탑 10자리 중 3자리를 광주일고가 채웠다. 올 시즌까지 KT 2군을 이끌었던 김기태 전 KIA 감독도 있다. 광주를 넘어 한국 야구 역사를 만들어 온 광주일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갈무리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류창원 준비위원은 “광주일고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모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동문들도 있는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며 “열정적으로 광주와 모교를 알리는 동문회 회원들에게 고생한다고 말하고 싶다. 또 광주일고 총동창회와 모교에서 야구부 창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후원해주셔서 오늘이 있었다. 감사하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큰 행사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40년의 기록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열린 K리그 40주년 기념 전시회 ‘THE UNIVERSE’ 언론시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KIA 새내기 이상준 ‘이만수 포수상’ 수상

KIA 타이거즈에서 프로 데뷔를 앞둔 경기도 포수 이상준(18·사진 오른쪽)이 이만수 포수상을 받았다. 이상준은 21일 서울 잠실구장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7회 이만수 포수·호른상 시상식에서 포수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랐다. 올 시즌 19경기에 나온 이상준은 타율 0.243, 3 홈런, 14타점의 성적을 거두며 포수상을 수상했다. 헬크파운데이션이 진행한 시상식에서 주인공이 된 이상준은 25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과 150만원 상당의 흥삼을 부상으로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상준은 지난 9월 2024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KIA의 지명을 받았고,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러진 마무리캠프에 참가해 프로 첫 훈련을 소화했다. 홈런상은 마산용마고 내야수 차승준에게 돌아갔다. 고교 2학년인 차승준은 올해 25경기에 나와 타율 0.422, 7홈런, 36타점을 올렸다. 한편 이만수 전 감독이 이끄는 헬크파운데이션은 2017년부터 고교 포수를 대상으로 포수상과 홈런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투어 최고 장타자는 매길로이...안병훈 8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2-2023시즌 최고 장타자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였다. 미국의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은 21일 이번 시즌 드라이브 비거리를 분석한 결과 매길로이가 평균 326.3야드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세계랭킹 2위인 매길로이는 장타를 앞세워 이번 PGA 투어에서 2승을 거뒀다. 드라이브 비거리 2위는 피터 웨스트(미국·

321.7야드), 3위는 브랜던 매슈스(미국·321.3야드), 4위는 캐머런 챔프(미국·317.9야드), 5위는 니콜라이 호이그르(덴마크·317.7야드)였다. 한국의 안병훈은 평균 비거리 315.6야드를 날려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드라이브 비거리가 가장 짧았던 선수는 브라이언 스투어트(미국)로 시즌 평균 271.5야드를 기록했다. /연합뉴스